

사우디, 산유량 19개월만에 최저

JOID, 2012년 12월 하루 903만배럴 생산 ... 자체 소비량 감소로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2012년 12월 산유량이 19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중동 현지 일간지인 걸프뉴스가 2월18일 보도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원유 시장 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설립한 국제기구공동통계(JOID: Joint Organizations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2년 12월 한달 동안 하루 평균 706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2012년 11월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2011년 9월 이래 최저수준이라고 JOID는 밝혔으며, 하루 평균 산유량도 903만배럴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산유량과 원유 수출량의 감소는 사우디의 원유 사용량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같은 달 사우디가 자체 소비한 원유는 하루 30만3000배럴로 지난 10개월 동안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는 최근 대부분의 원유를 소비하는 전력 생산과 해수담수화를 위해 원유 대신 천연가스 사용량을 늘려왔다고 신문은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9>